

전국 콜키지 무료?... 주류반입 시대를 기다리며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이 맥주 좀 시원한 것으로 바꿔줄 수 없을까요?”

“상은 맥주를 찾는 손님들이 더 많다보니 우리 식당은 아주 차가운 술은 없습니다. 맑은 편에 편의점 보이죠? 저기 맥주 시원한거 있어요. 사다 드세요.”

“여기 와인이라 위스키 콜키지 얼마예요?”
“없습니다. 저희는 주류를 불문하고 술은 반입이 안됩니다.”

한 곳은 중국, 다른 한 곳은 한국이다. 요즘 술자리에 가기 전엔 ‘콜키지’가 얼마인지 묻는게 일이다. 식당이 100곳이라면 콜키지 방식도 백가지다. 안 받는 곳도 있다지만 여전히 드물다. 인당, 또는 병당 몇 만원부터 최근엔 시간당으로 가격을 책정한 곳도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의 경우 입장 판매가의 몇 퍼센트, 또



중국 저장성의 한 호텔에서 주류 반입비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요구한 주류 반입비는 중국 위안화 50원, 한화로 치면 약 9100원이다. /바이두 캡처

는 십만원대를 부르는 곳도 있어 원성을 샀다. 아예 주류는 반입 불가를 원칙으로 하는 곳도 많다.

전국, 어느 식당이나 콜키지 무료. 이런 곳이 있을까. 있다. 중국이다.

자타 공인 술꾼으로서 술 배송(안상미 기자의 와이와인<211>술 18분 배송의 추억) 못지 않게 중국이 그리워질 때는 바로 식당에 술을 가져가고 싶을 때다.

먼저 콜키지라는 말부터 바꿔야겠다. 콜키지란 와인의 ‘코르크’에 비용을 뜻하는 ‘차지(charge)’를 더한 말이다. 보통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고객이 가지고 온 주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뜻하는데 국립국어원은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주류 반입비’를 선정하 바 있다.

중국의 경우 부러 묻지 않아도 주류 반입비가 없는 것이 상식이다.

자기 술을 가져갈 수 있는게 일반적이 라지만 처음엔 뭔가 어색한 나머지 스스로 제한을 뒀다. 그 식당에서 파는 술은 가져가지 않거나 아니면 맥주나 쌀 술은 식당에서 시켜먹는 다든지 말이다. 맥주를 ‘주류반입’ 할 생각은 차마 못하고 있던 일행들에게 종업원이 편의점에서 사다 먹으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나서 보니 특히 대여섯명 이상 단체로 온 경우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캔맥주까지 바리바리 들고와 마시는 것이 보였다. 맥주나 와인은 뭐 말할 것도 없었다.

공짜니 물론 서비스도 기대하면 안된다. 착석하면서 당당히 술을 가져왔으니 잔을 달라고 말한다. 그러면 종업원도 자연스럽게 가져다준다. 10곳 중 9곳은 투박한 물컵을 사람 수에 맞게 줬다. 내가 꺼낸 술이 와인인데 맥주든 말이다.

중국도 고급 식당인 경우 주류 반입비를 요구할 때도 있었다. 한 일식당은 와인

을 가져왔더니 잔당 얼마를,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병당 얼마를 내라했다. 그런데 와인잔을 안쓴다니 돈을 안받는다. 후자는 와인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치즈와 살라미를 준비 중인데 필요없다니 낼 비용도 없었다.

최근에 중국 저장성의 한 호텔이 주류 반입비를 내라고 했다가 비난에 휩싸였다.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는 물론 사용할 때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데 술을 가져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쉽게 말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난리가 난거다. 당시 고객이 가져간 와인 2병에 대해 호텔이 요구한 주류 반입비는 중국 위안화로 50원, 한화로 계산하면 약 9100원이었다.

전국 콜키지 무료인 중국에서 한국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술을 가져가면 비용을 받을까 안받을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 휘귀 식당에 문의했다. 식당에서 판매하지 않는 주류에 한해서만 비용없이 들고와 마실 수 있겠다. 절반은 중국식, 절반은 한국식인가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두 발로 걸으며 얻은 통찰

이상한 서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곳에 놓인 수만 권의 책들은 인문, 역사, 소설, 시, 자연과학, 소설, 에세이 등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주인장은 자신의 취향에 맞춰 책들을 서가에 꽂아 놓고, 방문객은 원하는 책이 나타날 때까지 책장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다소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에도 불구하고, 서점의 인기는 높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이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재미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걸기의 인문학’은 미국의 작가이자 역사가인 리베카 솔닛이 두 발로 걸어 다니며 얻은 통찰을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당신은 이 백과사전을 들춰보기 위해 역수 같은 빛속에서 한참을 걸어가곤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클릭과 드래그면 됩니다”라는 카피가 붙은 시디롬 백과사전 광고를 보게 된다. 광고 문안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보던 솔닛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도서관에 가던 아이에게 진짜 교육, 적어도 감각과 상상력의 교육은 빛속을 걸어보는 게 아니었을까.

책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점점 증식한 기술력이 생산 시간을 최대화하고 이동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의 자유 시간을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최첨단의 시간 절약 기술력을 통해 노동자가 얻는 건 자유가 아닌 생산성. 기술력을 둘러싼 효율성의 수사 또한 계량 불가능한 것은 가치



걸기의 인문학

리베카 솔닛 지음/김정아 옮김/반비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수많은 재미, 특히 공상에 잠기거나 구름을 쳐다보거나 이리저리 거닐거나 가게를 구경할 때와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의 범주에 속하는 재미는, 더 분명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빨리 진행되는 일로 채워져야 하는 빈틈이 아닌 것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깥을 걸으며 우연히 친구를 만나거나, 가게 진열장에서 찾아다니던 책을 발견하거나, 수다쟁이 이웃에게 인사를 듣거나, 담벼락이나 전신주에서 공연 포스터나 아이로니컬한 정치 논평을 읽게 되거나, 건물들 사이로 달이 뜨는 것을 보는 것. 이처럼 무작위로 널려 있는 어떤 게 우리 눈에 띄는 순간, 우리는 자기가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고 솔닛은 말한다. **512쪽, 1만9500원.**

/김현정 기자 hjk1@

끓주린 마흔의 생존 독서

책 읽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쇼츠(짧은 동영상)’에 눈과 귀를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긴 글 읽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독서도 책 내용을 요약한 동영상 보는 것으로 대신하는 시대에서, 밥은 굶더라도 책은 읽는다는 사람이 있다. 긴 통근 시간 때문에 책 읽기를 시작했던 저자는 이제는

책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됐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를 마주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고, 타인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 “읽다 보니 변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다른 내가 돼 있었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하루 한 권, 빛이 돼 준 책들에 관한 이야기.

324쪽, 1만6800원.



변한다 지음/느린서재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가동 중이던 원전을 모두 정지시켰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전력 회사들은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려 한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대해 원전 운전 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후쿠이 지방 재판소에서 오이 원전의 운전을 금지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책의 저자는 이 재판을 관장한 재판장 히구치 히데아키다. 그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해 원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낸다. “사람이 항상 관리해야 한다는 말은 사람이 관리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192쪽, 1만3000원.



히구치 히데아키 지음/강해정 옮김/생활성서사

시대정신의 배신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나라다. 국민들은 어느 한 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저울질한다. 좌파는 주사파에 장악당하고 강남좌파와 같이 신기득권화 됐으면서 성장하지 않고, 우파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발전시키지도 새로운 정치인을 키워 내지도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를 소

망하는 제3정치세력은 현실 정치에 실패했다고 책은 지적한다. 저자는 이들 모두에게 걸립된 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진단하고, ▲신자유민주주의 수립 ▲초지성자본주의 ▲종북주사파와 결합한 기득권 카르텔 세력 척결 ▲지역분열주의 극복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296쪽, 2만원.



이수봉 지음/새론북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IEA “중동 정세 따라 유가 100달러 넘을 수도” /사진 뉴시스
- ▲‘채권왕’ 건들락 “내년 초 경기 침체...금리 하락할 것”

- ▲헤즈볼라 “늘고 약한 이스라엘 피로 물들여라”
- ▲이슬람계 민심 의식...바이든, 이슬람 혐오증 대응전략 마련 중



- ▲中 증시, 상승 개장 후 매도로 등락...창업판 0.2% ↓
- ▲中의존도 줄이며 ‘수출 플러스’...겨울철 에너지 수요 주목 /사진 뉴시스